

**BRUGIER-RIGAIL GALLERY SEOUL | PRESS KIT****Anthony Lister – First Exhibition in Korea 《Welcome to Lister’s World》**

Dates : 17 June (Thu) – 29 August (Sun) 2021

Venue : Brugier-Rigail Gallery Seoul | 1F, 299 Jahamun-ro, Jongno-gu, Seoul, Korea

Hours : Tue-Sat | 2-7PM | by appointment

Tel : +82 (0)2-3417-0900

"Welcome to Lister’s World" depicts a parade of superheroes with a slight hint of villain’s elements, encouraging the viewer to explore their perspective on what is right or wrong and what is good or evil. Anthony Lister’s signature style skillfully diverges from a general rule of superheroes, characterized by the artist’s unique brushstrokes, comic-styled colour palettes, and a void background. As the viewer walks across the gallery space, the bodies of work engage her/him into a story of which Lister calls ‘contemporary mythology’.

A series of superheroes wearing a mask in Lister’s works are the contemporary adaptations of gods from the ancient times. Each figure’s head, torso, and limb appear to be in constant motion and in a battle for dominance. At the same time, they float in so-called ‘negative space’ in art. It is a kind of indeterminate space, which is perceiv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observer’s viewpoint. The trace of paint drippings off the surface creates the effect of still being wet, and represents the power and vitality radiating from the streets and the studio where Lister works.

Working at the junction between street art and high art, mainstream and substream, Lister is an iconoclast like the masked superheroes of his own. Lister was introduced to art by his grandmother who was a painter, and especially the works of Australian expressionists like Brett Whiteley and Arthur Streeton have had a resounding affect on his artistic career. Over the course of his career, the artist has travelled the country replacing bus shelter advertisements with his own art and painting dozens of walls.

Dancing inbetween the often-rigid definitions of art, Lister has built his own world rather than waiting for a superhero who will never come for us. And, you’re invited.

브루지에 히가이 **갤러리** 서울 | 보도자료

앤토니 리스터(Anthony Lister) 한국 첫 개인전 《Welcome to Lister's World》

전시기간 : 2021년 6월 17일 (목) – 8월 29일 (일)

전시장소 : 브루지에 히가이 갤러리 서울,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299, 1층

관람시간 : 화-토 | 오후 2-7시 | 그 외 사전 예약

문의 : 02-3417-0900

***COVID-19 예방을 위해 공식적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6/17 (목) 오프닝 전후로 개별적으로 방문해주시면 감사의 선물로 보답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슈퍼히어로물에서 영웅은 오랜 시간 절대적 선의 존재였다. 빌런이 저지른 악으로 인해 혼란과 절망에 빠진 사회를 구해내는 히어로를 향해 우리는 유년시절부터 일말의 의심 없는 지지를 보내왔다. 앤토니 리스터(Anthony Lister)는 히어로의 규율을 벗겨나 우리 안에 내재한 선과 악의 개념 사이의 모호성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우리 사회 속에서 정의라는 미명으로 행해지는 타인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향해 실질적인 질문을 해보도록 만드는 것이다.

갤러리에 일렬로 늘어선 가면을 쓴 다수의 슈퍼히어로는 히어로/빌런 그리고 선/악이란 양가성의 시각적 혼종물이다. 레드, 블루, 옐로우, 그린, 블랙 등 만화책에서 볼 법한 색상 범위를 사용해 그려진 각각의 캐릭터는 그와 대비되는 여백의 공간을 부유한다. 디자인 용어로 '네거티브 스페이스(negative space)'라고도 불리우는 이 공간은 움직이는 관찰자의 시점이나 행위에 의해 지각되는 상대적이고도 미결정적인 공간이다. 그곳은 관찰자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볼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며 역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품는다. 페인트가 흘러내리고 튀긴 표면의 흔적은 여전히 젖어 있는 듯한 효과를 내며 리스터의 붓질과 만나 거리와 스튜디오로부터 뺏어 나온 힘과 생기를 보여준다.

앤토니 리스터는 스스로가 그래피티 아티스트보다 "거리에 그림을 그리는 파인 아티스트"에 가깝다고 말한다. 낙서와 예술,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에서 자신이 그린 가면 쓴 슈퍼히어로처럼 스스로의 모순을 가감없이 드러낸다. 브리즈번 교외에서 성장한 리스터는 그림을 그렸던 할머니를 통해 예술을 접하게 되었다고 회고한다. 어려서부터 방 한 칸에 마련된 할머니의 작업 공간과 집 안의 식탁보, 달력 등에서 브렛 화이트리(Brett Whiteley)와 아서 스트리트(Artur Streeton) 같은 오스트레일리아 추상 표현주의나 인상주의 대가들의 작품을 눈에 익혔던 것이다. 비록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며 청소년기의 성장통을 겪었지만 17세부터 거리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예술은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된다. 그는 이후 호주 전역을 여행하였고 낡은 버스 정류소의 광고를 자신의 작업으로 대체해 나가며 거리에서 예술적 커리어의 기반을 다졌다.

선악이 끊임없이 교차되는 회색지대의 세상에서 선 거리의 파인 아티스트 앤토니 리스터는 절대 오지 않을 슈퍼히어로를 기다리기 보다는 자신만의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여 우리를 초대한다.

GALERIE BRUGIER-RIGAIL SEOUL – 갤러리 브루지에-히가이 서울

299, Jahamun-ro, Jongno-gu, Seoul, South Korea - 03021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299, 1층
seoul@galerie-brugier-rigail.com | www.galerie-brugier-rigail.com | (02) 3417-0900

Anthony Lister



Anthony Lister(b.1979) is a contemporary Australian-born painter and installation artist, best known for his merging of "high" and "low" cultural imagery in his work. He is looked to as one of the best painters in street art anywhere in the world. Employing charcoal, acrylic, spray paint, and oil. Lister's scrawling, figurative works depict a parade of heroes and villains, encouraging the viewer to explore their perspective on what is right and wrong.

Born in Brisbane, Australia, he studied at the Queensland College of Art. His works have been exhibited throughout Australia, U.S., Canada, U.K., Germany, France, Italy, Portugal, and Japan and included in the collections of Urban Nation Museum Berlin, National Gallery of Australia, David Roberts Collection, TVS Partnership, Brand & Slater Architects, BHP Collection, Art Bank Australia, Hugh Jackman, Geoffrey Rush, Pink, etc.

앤토니 리스터(b. 1979)는 호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스트리트 아티스트로 도발적인 주제를 통해 현실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예술의 단단한 권위를 느슨하게 만드는 작업을 지속해왔다. 목탄, 아크릴, 스프레이, 유채 등 여러 재료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그의 작업은 일정한 주제로 제한되지 않는 대담함을 보여주며, 단번에 각인되는 강렬한 인상을 자아낸다. 10대 시절에 그래피티 작업을 시작한 리스터는 그래피티에 뿌리를 둔 자신만의 시각적 언어를 형성하며, 오늘날 호주 스트리트 아트 선구자로 꼽히고 있다. 작가의 화면 속에는 히어로와 빌런의 퍼레이드가 이어지며, 이는 관람자로 하여금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탐구하도록 이끈다.

퀸즐랜드 예술대학을 졸업한 앤토니 리스터는 호주,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포르투갈, 일본 등지에서 다양한 전시와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호주 내셔널 갤러리, 호주 아트뱅크, 베를린 어반 네이션 등의 예술기관들 뿐만 아니라 데이비드 로버츠, 휴 잭맨, 핑크, 퍼렐 윌리엄스 등의 셀럽들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현재 시드니에서 거주 및 활동 중이다.

GALERIE BRUGIER-RIGAIL SEOUL – 갤러리 브루지에-히가이 서울

299, Jahamun-ro, Jongno-gu, Seoul, South Korea - 03021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299, 1 층
seoul@galerie-brugier-rigail.com | www.galerie-brugier-rigail.com | (02) 3417-0900



Anthony LISTER
Girl Collects Toy
2021

Acrylic and mixed media on canvas
130 x 100 cm



Anthony LISTER
Let The Rain In
2021

Acrylic and mixed media on canvas
51 x 40,5 cm



Anthony LISTER
Body Turns
2021

Acrylic and mixed media on canvas
51 x 40,5 cm

© Anthony Lister and Courtesy Galerie Brugier-Rigail



All images in the press release must include artwork and copyright information.

All images can be used for promotional purposes only and cannot be edited without prior consultation with the gallery.

HD Images Download link : <https://1drv.ms/u/s!Aml6NX1vevCP6WjxGiDklOJgKW7c?e=XPQch2>

GALERIE BRUGIER-RIGAIL PARIS SEOUL

Among the characteristic landscape of contemporary art galleries, Brugier-Rigail Gallery has a unique artistic and aesthetic line. At once urban and contemporary, this gallery, created in 2001, is modelled on its two founders. Éric Brugier and Laurent Rigail, both art lovers, started as collectors before becoming gallerists. Only representing personally selected artists and pieces, they support young artists whom they find promising. As two gallerists that had both once dreamed of taking the creative path, the aesthetic line of the gallery naturally takes an old school route, presenting the pioneers of urban art from the 80's. The gallery represents Robert Combas, Speedy Graphito or JonOne and Miss Tic from the French street art scene. Internationally, they represent John Matos Crash, Nick Walker, Katrin Fridriks, Shepard Fairey (Obey Giant) and Anthony Lister. Nevertheless, the two collectors have never ceased to foster contemporary and urban art novices, and are constantly on the lookout for the curious. Therefore, they support talented artists such as Fabien Verschaere, M. Chat, MadC, L'Atlas, GR1, Seth and FenX. Outside these duties, Éric Brugier and Laurent Rigail also dedicate themselves to inform and guide customers and collectors. Expertise, experience, and ethical transparency are all called for. Brugier-Rigail Gallery opened its first branch in Seoul, Korea, in May 2019.

오랜 시간 컬렉터로 활동하며, 프랑스 우수 기업들과 협업하고 예술적 안목을 인정받아온 에릭 브루지에(Eric Brugier)와 로랑 히가이(Laurent Rigail)는 보다 많은 사람들과 예술을 향유하고자 파트너십을 맺고 갤러리를 함께 열었다. 2001년, 파리 마레지구에 개관한 '브루지에-히가이 갤러리'는 프랑스 미술계에 '어반 아트'라는 장르를 소개하고, 다양한 동시대 미술 전시를 전문적으로 선보이는 갤러리로 자리매김했다.

'어반 아트'의 선구자이자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 존원(JonOne), 존 마토스 크래쉬(John Matos Crash), 닉 워커(Nick Walker), 무슈 샤펜(M. Chat), 셰퍼드 페어리(Shepard Fairey), 카트린 프리드릭스(Katrin Fridriks), 라틀라스(L'Atlas), 세쓰(Seth), 페닉스(FenX), 앤토니 리스터(Anthony Lister)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파비앙 베르슈레(Fabien Verschaere), 매드씨(Mad C), 지알원(GR1) 등의 유망한 작가들을 발굴 및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19년에는 아시아 첫 분점을 서울에 개관하며, 한국 컬렉터 및 미술 애호가들에게 유럽 및 미국 아트씬을 망라하는 폭넓은 미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웅갤러리와 본화랑, 아트아리와 함께 자하문로 299 아트빌딩에 자리잡은 브루지에-히가이 갤러리 서울점은 앞으로 계속해서 무한한 잠재력과 역량을 지닌 작가를 엄선하여 소개해 나갈 예정이다. 갤러리 기획전 및 아트페어 참가 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관과의 협업 및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소속 작가들의 국제적 저변 확대를 도모할 것이다. 이로써 브루지에-히가이 갤러리는 파리와 서울 지점 간의 균형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작가와 동반 성장하는 공간이 되고자 한다.

GALERIE BRUGIER-RIGAIL SEOUL – 갤러리 브루지에-히가이 서울

299, Jahamun-ro, Jongno-gu, Seoul, South Korea - 03021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299, 1 층
seoul@galerie-brugier-rigail.com | www.galerie-brugier-rigail.com | (02) 3417-0900